



K-water 충주권지사 충주다목적댐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상생 하모니



‘친환경 식생 경관 조성’을 통해 힐링 공간으로 Jump

충주댐 상류 ‘제천 청풍면 도곡리 수변 지역’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머무르게 하는 힐링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충주다목적댐 홍수조절지 내의 기존 친환경 고구마 단지 주변이 친환경 경관 단지(9천700㎡)로 조성됐다. 이곳은 보리, 유채, 백일홍 등이 기존 고구마밭과 어우러



져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한다. 가을에는 하얀 메밀꽃을 볼 수 있다. 올해 초 K-water 충주권지사(지사장 문경훈), 제천시(시장 이상천), 청풍면 도곡리 마을(주민대표 성기조)은 친환경 경작단지 조성 및 경관 개선을 통한 댐 주변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민 주도형 친환경 맞춤형사업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경훈 지사장은 “앞으로 댐 주변 지역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편하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

K-water 충주권지사는 댐 주변 지역의 독거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무료 간병, 기사 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



1 충주다목적댐 전경 2 문경훈 지사장 3, 4, 5 친환경 경관단지의 보리밭, 유채꽃 6 사랑나눔 무료의료 봉사 7 희망나눔리어카 사업 협약식 8 장학금 수여식 9 3D 코딩 수업



민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 생계안정과 자립 의지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희망 나눔 리어카 지원사업은 ‘K-water 충주권지사’, (주)엑터스컴퍼니, ‘제천종합사회복지관’ 3개 기관이 협업해서 시행하고 있다. 제천시 거주 취약계층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제천 관광명소 홍보물을 부착한 경량리어카를 제작해 기부하고 홍보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자활능력 지원과 지역관광 홍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료 반찬 서비스 지원사업은 우려되는 취약계층에게 무료 밑반찬을 제공,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무료 반찬 서비스 지원대상은 충주 78명, 제천 33명 총 111명으로 지역 자활센터에 사업을 위탁해서 시행한다. 이 사업은 수익을 사회에 환원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 무료방역 서비스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질병 예방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위생환경 개선 필요성에 의해 시작됐다. 현재 충주댐 주변 지역인 충주·제천·단양 소재 읍면동 경로당 및 저소득가정 520곳에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꿈나무들과 함께 미래를’ 여는 희망의 디딤돌

K-water 충주권지사는 댐 주변 지역 소재 학교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비, 급식보조비 등을 지급하고 체험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가정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미래세대 육성에 힘쓰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멘토링 지원사업을 충주열린학교에 위탁해 학습의 흥미를 유발하며 자아 형성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청소년 멘토링 사업은 지역 대학 재학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을 멘토로 지정해 만 15~24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지도와 경험 공유를 통해 검정고시 합격을 지원하고 사회적 개발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3D 코딩 교실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7월부터 제천 청소년 문화의 집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K-water 충주권지사 관계자는 “댐 주변 지역의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❶

